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제5권 2호 (2017. 8) pp. 47~56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5 Iss. 2 (Aug. 2017)

충청 일부지역 군인과 대학생의 구강건강인지 및 행태 차이

고다경, 배성숙*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Differences in Oral Health Perception and Behaviors between Airmen and Male Undergraduates

Da-kyung Ko, Sung-Suk Ba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46, Hanseo 1-ro, Haemi-myun, Seosan-Si, Chungcheongnam-do, 31962,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oral health perception and behaviors of male adults in their 20s, who serve in the air force and general male undergraduates. Randomly selected subjects were 100 airmen serving in the air force located at Seosan City, Chungcheongnam-do and 107 male undergraduate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September 10 to September 17, 2014.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d cross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SPSS 21.0 program (α<0.05).

The findings show that both airmen and undergraduates perceived that 'fluoride application' and 'filling grooves of teeth' were effective in preventing dental caries and their main purpose of dental visit was to 'treat dental caries', and that the frequency of snack intake was 'less than 1 a day'(p<0.05). Oral health educations were more frequently experienced by undergraduates, while smoking was less frequently experienced by airmen(p<0.05).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tend opportunity for airmen living in groups to receive oral health educations for enhancing and maintaining their oral health and increase perception of oral health enhancement.

Key words : Oral health, Oral health behaviors, Oral health perception
색 인 : *구강건강, 구강건강 인식, 구강건강 행태*

교신저자: 배성숙
우편번호 31962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Tel: (041) 660-1573, Fax: (041) 688-1579, E-mail: ssbae@hanseo.ac.kr
투고일: 2017. 01. 31. 심사일: 2017. 07. 14. 게재확정일: 2017. 08. 11.

1. 서 론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하게 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1). 이 가운데 구강건강은 저작, 발음, 심미 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반면, 구강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생활에 불편감을 주기도 한다. 뿐 만 아니라, 진행 될수록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2),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구강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결국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3). 특히, 치아를 포함한 구강조직들은 구강질환에 이환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본래의 상태로 재생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비가역적 특성을 지니는 바와 같이(4), 건강한 상태에서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강질환은 발생 전이나 초기에는 적절한 예방처치와 간단한 구강관리만으로도 구강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5), 구강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구강위생을 관리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건강한 상태에서도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모든 성인 연령층의 30% 가량이 치아우식증이 있고, 치주질환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50대 이후부터는 치주질환의 유병률이 2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6). 성인 초기 남자로 신체적·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청년들은 주로 대학생이거나 의무 입대로 군복무 중인 군인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으로 인해 통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구강건강인지와 행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군인의 경우, 단지 대학생과 동일한 연령대로 간주하기보다는 집단 간 환경적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군인은 격리된 사회 속에서 집단생활, 훈련, 선·후임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규칙적 식사, 한정된 식단 등의 환경적 제한 요인을 갖는 특성이 있다(7). 뿐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하여 병·의원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일반 대학생 남자와 군인 남자와는 구강건강인지 및 행태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일부 동일지역 군인과 일반 대학생과의 구강건강인지 및 행태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인들의 구강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구강보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임의로 선정한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군부

대에 복무 중인 군인 100명과 충청도에 거주하는 남자 대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배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이 중 설문응답이 불충분한 11부를 제외한 196부를 조사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인영(8)의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 행태 및 구강보건 지식 인지도 조사'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도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항과 주관적 구강건강 인지도 1개 문항, 치과방문 사항(치과 정기검진, 치과 방문횟수, 치과 방문목적) 3개 문항, 구강보건 지식(불소효과, 치아 홈 메우기 효과, 구강보건 교육 여부) 3개 문항, 구강건강관리행태(칫솔질 시기, 칫솔질 방법, 간식섭취 후 칫솔질 여부,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 5개 문항, 식습관(규칙적인 식사, 식사 이외의 간식섭취, 간식섭취 빈도)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 SPSS 21.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이하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군인은 현역자 113명(96.6%), 대학생은 전역자 48명(60.0%), 군입대 예정자 32명(40.0%)로 조사되었다. 군인은 계급별로 이병 12명(10.9%), 일병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특성	분류	군인	대학생
병역사항	현역자	113(96.6)	0(0.0)
	전역자	4(3.4)	48(60.0)
	군입대 예정자	0(0.0)	32(40.0)
계급	이병	12(10.9)	0(0.0)
	일병	50(45.5)	0(0.0)
	상병	25(22.7)	0(0.0)
	병장	23(20.9)	0(0.0)
	기타	0(0.0)	80(100.0)
흡연	비흡연	72(62.6)	39(52.0)
	흡연	30(26.1)	22(29.3)
	금연	12(10.4)	4(5.3)
	기타	1(0.9)	10(13.3)

50명(45.5%), 상병 25명(22.7%), 병장 23명(20.9%) 으로 나타났고 흡연여부는 군인은 '비흡연' 72명(62.6%) '흡연' 30명(26.1%), 현재 '금연' 12명(10.4%), '기타' 1명(0.9%)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은 '비흡연' 39명(52.0%), '흡연' 22명(29.3%), 현재 '금연' 4명(5.3%) '기타' 10명(13.3%) 순으로 군인이 대학생들보다 비흡연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

3.2.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에서는 군인 '건강하다' 61명(52.1%), '충치치료를 받아야한다' 25명(25.4%) '잘 모르겠다' 20명(17.1%), '잇몸이 아프다' 11명(9.4%)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생 '건강하다' 36명(45.6%), '충치치료를 받아야 한다' 22명(27.8%) '잘 모르겠다' 17명(21.5%), '잇몸이 아프다' 4명(5.1%) 순으로 나타났으나 군인과 대학생 간 주관적 구강건강인지 수준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2〉.

3.3. 치과 정기검진과 방문횟수

'치과정기검진'은 군인 30명(25.6%) 대학생 20명(25.0%) 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 '치과방문횟수'는 '1회 이하' 방문이 군인 50명(45.9%) 대학생 53명(71.6%), '2회' 방문은 군인 32명(29.4%) 대학생 10명(13.5%), '3회' 방문은 군인 14명(12.8%), 대학생 4명(5.4%), '4회' 방문은 군인 6명(5.5%), 대학생 8명(4.4%), '5회 이상' 방문은 군인 7명(6.4%) 대학생 5명(6.8%)으로 치과방문횟수는 군인이 대학생들 보다 많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치과방문목적은 군인은 '충치치료' 48명(43.2%), '구강검사' 42명(37.8%), '치아 홈 메우기' 10명(9.0%), '치주치료 등 기타' 10명(9.0%), '불소도포' 1명(0.9%)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은 '충치치료' 36명(49.3%), '구강검사' 20명(27.4%), '치주치료 등 기타' 16명(21.9%), '치아 홈 메우기' 1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군인과 대학생 모두 치과방문목적은 '충치치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3〉.

〈표 2〉 주관적 구강건강인지의 차이

단위 : 명(%)

분류	군인	대학생	계	p*
건강하다	61(52.1)	36(45.6)	97(49.5)	0.410
충치치료를 받아야 한다.	25(25.4)	22(27.8)	47(24.0)	
잇몸이 아프다	11(9.4)	4(5.1)	15(7.7)	
잘 모르겠다	20(17.1)	17(21.5)	37(18.9)	

*by chi-square test at α =0.05

〈표 3〉 치과 방문 정도의 차이

단위 : 명(%)

특성	분류	군인	대학생	계	p*
치과정기검진	예	30(25.6)	20(25.0)	50(25.4)	0.919
	아니오	87(74.4)	60(75.0)	147(74.6)	
치과방문횟수	1회 이하	50(45.9)	53(71.6)	103(56.3)	
	2회	32(29.4)	10(13.5)	42(23.0)	
	3회	14(12.8)	4(5.4)	18(9.8)	0.010*
	4회	6(5.5)	2(2.7)	8(4.4)	
	5회 이상	7(6.4)	5(6.8)	12(6.6)	
치과방문목적	충치치료	48(43.2)	36(49.3)	84(45.7)	
	구강검사	42(37.8)	20(27.4)	62(33.7)	
	불소도포	1(0.9)	0(0.0)	1(0.5)	0.018*
	치아 홈 메우기	10(9.0)	1(1.4)	11(6.0)	
	치주치료 등 기타	10(9.0)	16(21.9)	26(14.1)	

*by chi-square test at α =0.05

3.4. 구강보건지식

'불소효과' 인지에 대한 지식은 군인은 '충치예방효과' 54명(57.4%), '잇몸병예방효과' 12명(10.5%), '기타' 16명(17.0%), '미백효과' 9명(9.6%)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은 '충치예방효과' 64명(67.5%), '기타' 21명(21.3%), '미백효과' 5명(6.3%) 순으로 나타나 군인과 대학생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학생 그룹이 불소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치아 홈 메우기 효과'는 군인은

〈표 4〉 구강보건지식의 차이

단위 : 명(%)

특성	분류	군인	대학생	계	p*
불소효과	충치예방효과	54(57.4)	54(67.5)	108(62.1)	
	잇몸병예방효과	15(16.0)	0(0.0)	15(8.6)	0.001*
	미백효과	9(9.6)	5(6.3)	14(8.0)	
	기타	16(17.0)	21(26.3)	37(21.3)	
치아 홈 메우기 효과	충치예방효과	43(37.7)	47(58.8)	90(46.4)	
	잇몸병예방효과	12(10.5)	5(6.3)	17(8.8)	
	미백효과	6(5.3)	1(1.3)	7(3.6)	0.046*
	입냄새제거효과	4(3.5)	3(3.8)	7(3.6)	
	잘 모르겠다	49(43.0)	24(30.0)	73(37.6)	
구강보건교육경험 여부	있다	44(37.6)	53(68.8)	97(50.0)	0.001*
	없다	73(62.4)	24(31.2)	97(50.0)	

*by chi-square test at α =0.05

'잘 모르겠다' 49명(43.0%), '충치예방효과' 43명(37.7%), '잇몸병예방효과' 12명(10.0%), '미백효과' 6명(5.3%) '입냄새제거효과' 4명(3.5%)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충치예방효과' 47명(58.8%), '잘 모르겠다' 24명(30.0%), '잇몸병예방효과' 5명(6.3%), '입냄새제거효과' 3명(3.8%), '미백효과' 1명(1.3%) 순으로 나타나 군인과 대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생 그룹이 '치아 홈 메우기 효과'에 대하여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구강보건교육경험 여부는 '있다'에서는 군인 44명(37.6%), 대학생 53명(68.8%), '없다'에서는 군인 73명(62.4%), 대학생 24명(31.2%)으로 군인이 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강보건교육경험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 4〉.

3.5. 구강건강관리 행태

칫솔질 시기는 '저녁식사 후'가 군인 70명(59.8%), 대학생 57명(71.3%)로 두 그룹 모두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는 '칫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닦는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군인 46명(39.3%), 대학생 47명(58.8%)로 나타났고, 간식 섭취 후 칫솔질을 하는 대상자는 군인 48명(43.2%), 대학생 23명(32.9%)으로 군인이 대학생보다 간식섭취 후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5〉.

구강위생용품 사용 여부에서는 '예'가 군인 30명(25.6%), 대학생 20명(25.6%)이었고,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 종류는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전체 인원 50명 중 군인은 '치실' 사용이 18명(36.0%), '치간칫솔' 사용이 10명(20.0%), '혀클리너' 사용이 2명(4.0%) 순으로

〈표 5〉 칫솔질 시기 및 방법

단위 : 명(%)

특성	분류	군인	대학생	p*
칫솔질 시기	아침식사 전	48(41.0)	30(37.5)	0.062
	아침식사 후	59(50.4)	53(66.3)	
	점심식사 후	53(45.3)	39(48.8)	
	저녁식사 후	70(59.8)	57(71.3)	
	취침 전	52(44.4)	56(70.0)	
칫솔질 방법	칫솔을 옆으로 움직여 닦는다.	24(20.5)	13(16.3)	0.120
	칫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닦는다.	46(39.3)	47(58.8)	
	둥글게 원을 그리며 닦는다.	33(28.2)	12(15.0)	
	아무렇게나 닦는다.	93(80.2)	65(81.3)	
간식섭취 후 칫솔질 여부	예	48(43.2)	23(32.9)	0.163
	아니요	63(56.8)	47(67.1)	

*by chi-square test at α =0.05

〈표 6〉 구강위생용품 사용 여부

단위: 명(%)

특성	분류	군인	대학생	계	p*
구강위생용품 사용 여부	예	30(25.6)	20(25.6)	50(25.6)	1.000
	아니오	87(74.4)	58(74.4)	145(74.4)	
사용하는 구강위생용품	치실	18(36.0)	11(22.0)	29(58.0)	
	치간칫솔	10(20.0)	6(12.0)	16(32.0)	1.000
	혀클리너	2(4.0)	3(6.0)	5(10.0)	

*by chi-square test at α =0.05

나타났으며, 대학생은 '치실' 사용이 11명(22.0%), '치간칫솔' 사용이 6명(12.0%), '혀클리너' 사용이 5명(10.%) 순으로 나타났으나 군인과 대학생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와 종류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6〉.

3.6. 식습관

식습관에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군인은 59명(50.4%), 대학생은 47명(60.3%)이었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군인은 58명(49.6%), 대학생은 31명(39.7%)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사 이외의 간식 섭취는 '예'라고 응답한 군인이 92명(78.6%), 대학생이 58명(73.4%)이었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군인이 25명(21.4%), 대학생은 21명(26.6%)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간식섭취빈도는 '1일 1회 이하'가 군인 50명(43.9%) 대학생 37명(46.8%)이었고 '1일 2회' 섭취는 군인 39명(34.2%), 대학생 15명(19.0%)이었으며, '1일 3회' 섭취는 군인 11명(9.6%), 대학생은 6명(7.6%)이었고 '1일 4회 이상' 섭취는 군인 1명(0.9%) 대학생은 0명(0.0%), '기타'는 군인 13명

〈표 7〉 식습관의 차이

단위: 명(%)

특성	분류	군인	대학생	계	p*
규칙적인 식사	예	59(50.4)	47(60.3)	106(54.4)	0.177
	아니오	58(49.6)	31(39.7)	89(45.6)	
식사 이외의 간식 섭취	예	92(78.6)	58(73.4)	150(76.5)	0.398
	아니오	25(21.4)	21(26.6)	46(23.5)	
간식섭취빈도	1일 1회 이하	50(43.9)	37(46.8)	87(45.1)	
	1일 2회	39(34.2)	15(19.0)	54(28.0)	
	1일 3회	11(9.6)	6(7.6)	17(8.8)	0.027*
	1일 4회 이상	1(0.9)	0(0.0)	1(0.5)	
	기타	13(11.4)	21(26.6)	34(17.6)	

*by chi-square test at α =0.05

(11.4%) 대학생은 21명(26.6%)으로 나타나 군인과 대학생이 간식 섭취빈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p<.005)<표 7>.

4. 고 안

본 연구는 성인 남자 중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군 복무중인 남자와 같은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들의 구강건강 인지 및 행태의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청년기 남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인 예방법 제안 및 구강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결과, 흡연여부는 군인은 '비흡연' 72명(62.6%), 대학생은 '비흡연' 39명(52.0%)로 군인이 대학생들보다 비흡연자가 더 많았는데(p<.005), 이는 통제된 군 생활과 시간적 여유의 부족 등의 이유로 '비흡연'이 대학생보다 군인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칫솔질 시기는 '저녁식사 후'가 군인 70명(59.8%), 대학생 57명(71.3%)로 군인이 높게 나타난 반면, '취침 전' 칫솔질에서는 군인이 52명(44.4%), 대학생이 56명(70.0%)로 대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p<0.05). 비교적 자율적인 대학생은 '취침 전' 칫솔질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군인의 경우 군 복무 중 군대에서 이뤄지는 야간훈련 등으로 칫솔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는 '칫솔을 위아래로 움직여 닦는다 '가 군인 46명(39.30%), 대학생 47명(58.8%)으로 칫솔질의 방법은 군인보다 대학생이 더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어(p<0.05), 군인에게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치과 정기검진은 '정기검진을 한다'가 군인 30명(25.6%) 대학생은 20명(25.0%)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조민정과 박영민의 연구(9)와 김설희(10)의 연구와 같이 군인과 대학생 모두 25% 수준으로 치과 정기검진에 대한 실천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치과 방문 횟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1회 이하 방문'에 군인이 50명(45.9%), 대학생은 53명(71.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치과 방문 목적은 '충치치료'가 가장 많았으며 군인은 48명(43.2%), 대학생은 36명(49.3%)으로 각각 나타났다.

불소가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군인이 54명(57.4%), 대학생이 54명(67.5%)으로 나타났고, 치아 홈 메우기 효과에 대해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군인이 43명(37.7%), 대학생이 47명(58.8%)으로 응답해 불소사용과 치아 홈 메우기가 충치에 예방효과가 있다는 구강보건지식에 대해서는 대학생이 군인보다 더 높게 나타나, 군인에게 불소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구강보건교육경험 여부는 '있다'가 군인이 44명(37.6%), 대학생이 53명(68.8%)으로 군인의 구강보건교육 경험도가 대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군인보다 대학생이 구강보건교육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군인, 대학생 모두 치실, 치간칫솔, 혀클리너 순으로 나타났다. 일 연구에서도 군인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치실 43(15.8%), 치간칫솔 30(11.0%), 혀클리너 14(5.1%) 순으로 나타났고(11), 또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치실 34.7%, 치간칫솔 27.8%, 혀클리너 15.3% 순으로 조사되어(12)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는 군인과 대학생 모두 현저히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구강 내 치면세균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사용법 등을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간식 섭취 빈도는 '1일 1회 이하'에 군인 50명(43.9%), 대학생은 37명(46.8%)으로 두 그룹 모두 많게 응답하였고 그 중, 군인이 간식 섭취빈도가 더 낮게 나타났는데($p<.005$), 이는 군인의 규칙적인 식사, 훈련, 제한된 활동범위 등으로 대학생보다 간식 섭취 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고안을 토대로 청년시기의 대학생과 군인들이 건강한 성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올바른 구강보건 인지 및 행태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으며,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등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군부대와 대학교 내에 구강건강증진 시설과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검토되기를 바라며, 관련된 필요한 구강보건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일부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된 연구 결과로서 연구의 내용을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2014년 9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임의로 선정한 충청남도에 소재한 공군부대 복무중인 군인 100 명과 같은 지역인 충청남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 배부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는 결과를 토대로 군인과 대학생 남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인 예방법 및 구강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였다.

1. 군인과 대학생에 따른 흡연여부는 군인의 '비흡연' 72명(62.6%)이 대학생의 '비흡연' 39명(52.0%)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치과방문목적은 '충치치료' 는 군인 48명(43.2%), 대학생은 36명(49.3%)으로 나타났고, 불소가 '충치예방효과' 가 있다고 응답한 군인은 54명(57.4%), 대학생은 54명(67.5%)으로 나타났으며, 치아 홈 메우기 효

과는 '충치예방 효과' 가 있다고 응답한 군인이 43명(37.7%), 대학생이 47명(58.8%)으로 나타났다($p<0.05$).

3. 구강보건교육경험은 받아본 경험이 있는 군인은 44명(37.6%) 대학생은 53명(68.8%)으로 나타났으며($p<0.05$), 간식섭취빈도는 '1일 1회 이하'가 군인 50명(43.9%), 대학생 37명(46.8%)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의 결과, 군인과 대학생의 구강건강 증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WHO,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Canada Ottawa, 1986.
2. 강신영, 김종배. 한국인 발치 수요와 원인비중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83;7(1):7-20.
3. 이미라, 한경순, 한수진, 최준선. 주관적으로 인지한 구강건강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PRECEDE 모형 적용.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11;28(1):23-35.
4. 서현석, 박경섭. 충남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4):641-653.
5. 김은희, 최혜숙, 오혜승. 보육교사의구강관리인식도가유아의구강건강에미치는영향. 대한치과위생학회지 2006;8(1):17-28.
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성인이환. 2006;52-55.
7. 이선미, 김선경, 강부월. 성인의 구강건강 관심 및 주관적 구강건강 증상.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11(6):871-880.
8. Ku IY, Oral health behavior and oral health knowledge awareness survey of some college. Social Science Research. 2009;2(10):1-14.
9. 조민정, 박영민. 일부 군인들의 입대 전후 간식섭취 횟수 변화에 따른 구강건강관리실태와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16;16(1):1-8.
10. 김설희. 일부 대학생의 치아우식경험과 구강건강인식, 치과치료불안의 관련성. 대한치과위생학회지 2012;14(4):223-231.
11. 심재숙, 성정민, 일부 군인들의 구강관리용품 사용실태 및 인식. 한국치위생학회지 2013;2(1):166-173.
12. 박승희, 전라북도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북: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10;4.